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1절에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2명의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명은 창세기 5장의 에녹이고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2장11절 말씀에는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길갈에서 출발하여 벧엘로 갔다가 여리고를 지나 요단 강가로 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역들을 함께 지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강 근방에 이르렀을 그 때 갑자기 불 수레와 불 말들이 나타나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있는 눈 앞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자신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소리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2:12)." 그러나 이내 엘리야는 엘리사의 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그에 대한 배경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성장 과정은 어땠는지 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의 경우 그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지 또한 약간의 성장 과정이나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엘리야의 경우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경에 갑자기 등장하여 하나님 앞에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 악한 왕 아합에게 보내졌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온갖 핍박과 죽음의 위협 때문에 숨어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18:4).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합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갈멜 산으로 모아 담대하게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소식을 듣고 도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브엘세바로 갔다가 다시 광야로 들어가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엘리야는 절망 가운데 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의 선지자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커다란 성취감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아합이 보는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은 목숨을 내어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것을 본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소리쳤지만 그 때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좌절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은 끝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지근한 반응도 계속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로뎀나무에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에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가뭄과 기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 시내가 마르기까지 먹여 주셨습니다. 악한 왕이 다스리는 아합의 왕궁이었지만 그 중에 오바댜라는 신실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갈멜 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내려 응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끝없는 불순종을 보며 좌절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19:18)." 그런데 칠천 명을 남겨주시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 절의 말씀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17절)."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눈 앞에서 일어나는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하실 때가 되면 이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마는 하나님께서는 바알

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사람 칠천 명을 남겨두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였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가 돌보던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가 있었고 더불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칠천 명이나 남겨 두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마주한 현실은 변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하시야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자신의 신하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다"라는 말을 4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죄가 그의 아들 아하시야에게도 그대로 전수되어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 신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남겨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 앞에서 보이는 변화는 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 날이 되면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불 수레와 불 말을 보내셔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수레와 말은 전쟁에서 쓰이는 것들이었지만 불 수레와 불 말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 수레와 불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늘의 군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명기20장 1절에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수레와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오감으로 느끼는 것들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눈 앞에 보이는 적들이 강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의 눈을 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수레와 불 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 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 갔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혹시라도 엘리야가 하늘에서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 찾아보겠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찾기 위해 3일 동안 찾으러 다녔던 그들은 끝내 엘리야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리셨으니 찾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안목이 이 땅의 보이는 것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하늘의 것에 주목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로마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눈 앞의 적들을 물리치겠다는 베드로의 충정이었지만 그것은 육신적인 안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 관한 말씀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유난히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라는 인물이 워낙 신비스럽고 기적을 많이 행하였을 뿐 아니라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말라기에서도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이 시대의 엘리야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이 시대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아무리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하였다고 하여도 우리의 관심은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입니다.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 수레와 불 말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늘로 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칠천 명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시며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순간에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불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비리 보며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